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1부: 10시
- 2부: 11시 30분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새찬송가 370장)
2.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기 도 다같이

- ① 교회의 주인되시는 예수님 앞에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참된 진리를 분별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소서.
- ③ 환락과 탐욕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리는 사회되게 하소서.
- ④ 유럽 내 차별과 혐오로 인한 갈등과 범죄가 사라지게 하소서.
- ⑤ 삶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 ⑥ 한반도 내 평화를 위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하소서.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사도행전 16장 27-34절 (신약 p.217)

설 교 설교자
“변화에 대한 절박함(3)”

현 금 다같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광 고 사회자

축 도 서일원 목사



수요일에배 Wend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성숙에 대한 관심

사람들은 돈을 벌고 출세하는 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 나오는 귀신들린 여종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주인들은 바로 이러한 세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와 출세를 위해서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여자의 인생을 구제하고 돕기보다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고 속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이기적인 기준과 가치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환락과 탐욕을 좇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당부하십니다(눅 8:18). 오늘날 우리 신앙의 변화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듣는 문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깊게 들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무슨 내용인가’하고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진리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세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게리 토마스, 「거룩이 능력이다」, 140).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히 2:1).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한 채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좇아 살면 안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진 줄로 생각한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눅 8:18).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동은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줍니다(제럴드 시처, 「하나님을 아는 지식」, 230).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멈추어 버립니다. 오히려 퇴보해 버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자들입니다(히 10:39).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폭 고여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걷어내고,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숙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떨쳐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찬양 Praise

예배하는 이들에게

Words & Music by 이종현

DM7 GM7⁽⁵⁾ F#m7 Bm7 E(add9)/G# A7(sus4)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돌리 네

DM7 GM7⁽⁵⁾ F#m7 Bm7 Em7 A(sus4) D G/D D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뉘고 하 시 네

GM7 A/G F#m7 Bm7 Em7 A Am7 D7(sus4) D

마음이 가난한이 에겐 축복을 근심 많은이 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

GM7 A/G F#m7 B7 Em7 A(sus4) A D G/D D

는 넉넉한 마음 허락 하시길 우리는 - 기도 합 니 다



기도제목 Prayer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말씀을 통해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3. 환락과 탐욕을 좇는 가치관과 방식을 버리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Bratislava 교회 - Daniel Pastirčák 목사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6월 21일(주일)	고전 13장 1 - 13절
6월 22일(월)	고전 14장 1 - 19절
6월 23일(화)	고전 14장 20 - 40절
6월 24일(수)	고전 15장 1 - 11절
6월 25일(목)	고전 15장 12 - 19절
6월 26일(금)	고전 15장 20 - 34절
6월 27일(토)	고전 15장 35 - 49절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마더와이즈	
오후 성경공부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내
큐티나눔모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합니다.
수요기도회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소독, ② 마스크 착용.
- **모임 안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오전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잠정 중단합니다.
- **예배 중 찬양 및 기도 안내**
슬로바키아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 찬양은 녹음된 MR을 사용하고 기도는 자막을 사용합니다.
- **‘질리나한인교회’ 카톡방 개설**
매주 예배 찬양을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카톡방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신앙생활 권면**
매일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TAX 2% 후원요청**
한국문화원(한글학교 슬로바키아법인명)에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법인 - 코로나19 종료 선언 후 한 달까지
 개인 - 코로나19 종료 선언 후 두 달까지
· IČO: 42069017
· Právna forma: občianske združenie
· Obchodné meno: Kórejské Kultúrne Centrum
· 주소: Na Sihoti 4, 010 01 Žilina

봉사위원 | Volunteers in Month

※ 코로나19 완전 해제 이후 봉사위원을 게시하겠습니다.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0년 6월 21일
(25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 섬기는 사람들

-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작: 김영수, 김은혜, 박시문,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